영어어문교육 *제29권* 3호 2023 가을
https://doi.org/10.35828/etak.2023.29.3.49

ESL/EFL 상황의 영어 습득에서 영문법의 역할*

김용명
(안동대학교)

Kim, Yong-Myeong. (2023). The role of English grammar in acquiring English in ESL/EFL situat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9*(3), 49-63.

As Celce-Murcia and Larson-Freeman (1999) point out, the role of grammar is not to explain rules but to intuit them.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we can intuit grammatical rules and teach them in ESL/EFL contexts. As a possible answer to this question, we derived the linguistic intuitions that native speakers are assumed to have on grammatical systems and represented them as semantic features. Specifically, we proposed [±abstract] and [±definite] for the article system, according to which nouns with the [+abstract] feature take the null article ∅, nouns with the [-definite] feature take the indefinite article *a(n)*, and nouns with the [+definite] feature take the definite article *the*. We also proposed [±transfer] for the structure of dative verbs, on which if a dative verb has the [+transfer] feature, it licenses the sequence *to*+IO, and if it has the [-transfer] feature, it licenses the sequence *for*+IO. Finally, for infinitives/gerundives, we established [±pastivity] and [±actuality], which explains the linguistic sense that if a matrix verb has the [+futurity]/[-actuality] feature, it takes infinitives, and if it has the [+pastivity]/[+actuality] feature, it takes gerundives. This approach to intuitionizing grammar systems can provide insights into the desirable direction to grammar teaching in the AI era.

[ESL·EFL contexts/the role of grammar/linguistic intuition/semantic feature/AI era, ESL·EFL 상황/문법의 역할/언어적 직관/의미자질/AI 시대]

I. 서론

언어의 창조성(linguistic creativity)이란 "유한의 규칙으로 무한의 문장을 생성해내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문법의 역할은 학습자들의 이런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에 걸쳐 문법 교수법이 부침을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안동대학교 해외파견연구보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거듭하고, 새로운 교수법이 도입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Celce-Murcia와 Larsen-Freeman(2015)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존하는 대부분의 문법서와 문법 교육은 문법 체계(systems)의 각 구성소들을 한 번에 한 개씩 별개로, 연역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학습자들은 각 문법 체제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시제 체계(tense system)에서 현재시제, 과거시제, 미래시제를 각각 별개로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시제 체계 전체를 통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제 체계와 동사 체계(verb system), 그리고 시상 체계(aspect system)와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는 문법의 역할을 규칙의 설명에 두고 있는 규칙의 '지식화(knowledging)'에 지나지 않으며, 규칙의 '직관화(intuitioning)'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ESL/EFL 상황에서 어떻게 규칙을 직관화할 것인가? 이 질문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Celce-Murcia와 Larson-Freeman(2015)은 문법의 역할은 규칙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대한 '이유(reasons)'를 설명하는데 있다고 한다. 규칙에 대한 이유란 NS(Native Speakers)가 각 규칙에 대해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언어적 직관(linguistic intuition) 또는 언어적 감각(linguistic sense)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ESL/EFL 상황에서 어떻게 NS가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언어적 직관을 도출하여 이를 일반화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Celce-Murcia와 Larsen-Freeman(2015, pp. 111-129)이 제안한 문법 체계(system)에 관한 핵심 의미(core meaning)를 토대로 지배 개념(governed notion)을 도출하고, 이를 Aarts(2018), Hegaeman과 Gueron(1999), Redford(2016) 등이 제안한 의미 자질(semantic feature)을 통해 일반화할 것을 제안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현행 문법 교육의 문제점에 관해 논의할 것이며, 3장에서는 영어의 관사 체계(article system), 전치사, 수여동사(dative verbs), 부정사(infinitives)와 동명사(gerundives) 등의 문법 체계의 지배 개념을 도출하여, 이를 의미자질로 나타낼 것을 제안할 것이며, 4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ChatGPT로 대표되는 AI 시대의 영문법 교육의 방향에 관해 제언을 할 것이다.

II. 문법 교육의 문제점

문법 교육은 GTM(Grammar Translation Method)과 ALM(Audio Lingual Method)로 대표되는 문법적 접근법(grammatical approach)에서부터 CLT(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로 대표되는 의사소통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으로 변천했으며, 최근에는 정확성과 유창성 둘 다에 초점을 두는 일련의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Long(1991)은 문법 교수를 'focus on forms(FonFs)', 'focus on meaning', 'focus on form(FonF)'으로 구분하고 있다. FonFs는 문법적 접근법에 상응하는 것으로, 언어는 일련의 규칙과 구조로 구성되며, 또한 누적적 연역적으로 습득된

다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Focus on meaning은 의사소통 접근법에 해당되며,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통합적 귀납적으로 습득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며, 형식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둔다. FonF는 유의미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 형식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가 어떻게 의미로부터 언어 형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와 관계된다(Doughty & Williams, 1998; Ellis, 2001). 또한 Nassaji와 Fotos(2011, p. 11)에 따르면, FonF는 다시 언제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의 반응에 따라 실행되는 부수적(incidental) FonF와 사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형식이나 규칙을 선제적으로 교수하는 계획된(planned) FonF로 구분된다.

그러나 문법 교수법이 변천하고 FonF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되어도 여전히 문법 교육은 문법 규칙을 누적적(additively)으로 제시, 연역적(deductively)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통합하는(synthesize)하는 규칙의 지식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대부분의 영문법 교재는 시제(tense)를 다음과 (1)과 같이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다.

(1) The Use of the Present Tense
·describes general facts that are unrelated to time
e.g. Two and two makes four.
·describes habitual action in the present
e.g. I always take the same bus to go to school.
·describes the present state
e.g. I live in Seoul.
·describes the events that are in progress in the future time
e.g. I see an airplane in the sky. (문용, 2015, pp. 100-102, 일부발췌함)

Celce-Murcia와 Larson-Freeman(2015)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시제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은 이를 다른 시제, 더 나아가 진행상(progressive aspect) 및 완료상(perfect aspect)과 통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 "We have sometimes seen teachers introduce a tense, yet fail to show students how that tense contrast with others, let alone how it fits into the system [tense/aspect systems] as a whole." (p. 109)

더구나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이와 같이 문법 규칙을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를 이해하고 내재화하고 통합하고 활용해야해야 하는 학습 부담은 전적으로 학습자에게 있다. 이런 점에서 Celce-Murcia와 Larson-Freeman(2015)은 문법 교육은 "Indeed, what we seek to do is give reasons, not rules, for why English grammar functions as it does (p. 4)"라고 주장하고 있

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소 바보스럽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해보자. 과연 NS들은, (1)에서 제시한 시제의 용법을 다 암기하고, 학습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NS들은 오랜 시간에 걸친 언어적 경험을 토대로 일종의 시제에 대해 그 무엇, 전문적으로 말해, 언어적 직관(linguistic intuition) 또는 언어적 감각(linguistic sense)을 자신의 머릿속, 다시 말해, 소위 정신적 문법(mental grammar)에 저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제를 사용할 것이다. 역으로, 학습자들도 NS들이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시제에 관한 이 같은 언어적 감각을 계발할 수 있다면, 그들도 이를 실제 언어 사용에서 적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ESL/EFL 상황에서 영문법의 역할

Celce-Murcia와 Larson-Freeman(2015)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문법의 역할은 규칙 설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NS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쌓아 온 언어적 직관을 설명하는 데 있다. 그러나 ESL/EFL 상황에서 영어 학습자들이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언어 사용을 경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EFL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ESL/EFL 상황에서 어떻게 NS가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언어적 직관을 도출하여 이를 형식화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가능한 답으로 Celce-Murcia와 Larsen-Freeman(2015, pp. 111-129)이 제안한 문법 체계(system)에 관한 핵심 의미를 토대로 지배 개념(governed notion)을 축출하고, 이를 Aarts(2018), Hegaeman과 Gueron(1999), Radford(2016) 등이 제안한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을 통해 일반화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에서는 이 같은 제안을 토대로 영문법의 주요 체계, 즉, 영어의 관사 체계, 전치사, 수여동사, 부정사와 동명사 체계 등에 관한 언어적 직관을 제시할 것이다.

1. 영어의 관사 체계

Cowan(2013)과 Parrott(2010)에 따르면, 영어의 관사 체계는 무관사(∅), 부정관사(*a*(*n*)), 정관사(*the*)로 구성되며, 외관상 단순하고 명료해 보이지만, 실제 관사를 사용하는 데에 많은 제약과 규칙이 있으며, 특히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영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에 관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영어의 관사 체계의 습득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행 문법서에서 영어의 관사 체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 (2)에서 보듯이, 단편적이고, 개별적이다.

(2) They[course materials] teach that we use the:
·when we have already mentioned what we're talking about.
e.g. I bought a cup of coffee and a cake. The cake was very sweet.
·when there is only one of something.
e.g. The Moon revolves around our planet.
·with defining relative clauses.
e.g. I met the man whom you had loved at that time.
·with defining of-construction.
e.g. We're enjoying the benefits of early retirement. (Parrot, 2010, p. 28)

(2)에는 단지 정관사 용법만 제시되어 있으며, 지면 사정상 부정관사, 무관사의 용법은 생략하였다. 앞서 제기했던 바보 같지만, 결정적인 질문을 해보자. NS들은 (2)에 제시된 것과 같은 관사의 용법을 모두 암기하여 실제 언어 사용에 활용하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그들은 언어적 경험을 토대로 확립한 관사 체계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직관에 의존하여 명사를 사용할 때마다 관사를 사용할 것인지, 또 사용한다면, 어떤 관사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NS가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관사 체계에 관한 언어적 직관을 도출해내기 위해 김용명(2019)은 영어 관사 체계에 대한 '추상성의 위계도(a hierarchy of abstractness on the article system)'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무관사(∅)는 [+abstract]라는 자질을 가지며, 부정관사(*a(n)*)는 [-definite]라는 자질을 가지며, 정관사(*the*)는 [+definite]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다음 예문 (3)에 적용해 보자.

(3) a. He went to ∅ **school** yesterday.
b. He went to ***a*** **school** yesterday.
c. He went to ***the*** **school** yesterday.

(3a)에서 보듯이, 명사 *school* 앞에 무관사(∅)가 부가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추상성의 위계도에 따르면, [+abstract]의 자질을 가진다. 따라서 (3a)에서 school은 구체적이고, 유형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추상적 목적, 즉, 'to study'를 나타낸다. 따라서 (3a)는 "He went to school (to study) yesterday."를 의미한다. 추상 명사, 가령, *happiness, love*에 무관사를 부여하는 것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3b)에서 보듯이, 명사 *school* 앞에 부정관사 *a*가 부가되어 있으며, [-definite]의 자질을 가진다. 따라서 (3b)에서 *a school*은 구체적이고 유형의 건물을 의미하지만, 불특정 *school*을 나타낸다. 따라서 (3b)는 "He visited an indefinite or unspecified school for some other matter yesterday not for the purpose of studying."을 의미한다. 또한 (3c)에서 보듯이, 명사 *school* 앞에 정관사 *the*가 부가되어 있으며, [+definite]의 자질을 가진다. 따라서 (3c)에서 *the school*은 특정된 유형의 *school*을 나타낸다. 따라서 (3c)는 "He visited one definite or specified school

yesterday not for the purpose of studying."을 의미한다. 다음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4) a. My office is ***the room*** on your right.
b. My office is ***a room*** on your right.

앞서 제시한 (2)의 정관사 용법의 설명에 따르면, 명사구가 관계사나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으면, 정관사 *the*를 수반하여야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4a)는 문법적이지만, (4b)는 비문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용명(2019)가 제안한 추상성의 위계도에 따르면, (4a)에는 [+definite]가 부여 되며, (4b)에는 [-definite]가 부여된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the+N'연쇄에서 정관사 *the*는 'the only N'을 나타내며, 'a(n)+N'연쇄에서 부정관사 *a(n)*은 'another N or more Ns'를 나타낸다. 따라서 (4a)는 "There is only one room left to you."을 의미하는 반면, (4b)는 "there are at least more than two rooms on your left, and my office is one of them."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영어의 관사 체계에 대한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설명은, Parrott(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 체계의 직관화의 논리에 따라 관사 체계에 대해 NS가 언어적 감각으로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abstract]/[±definite]를 학습자들도 계발할 수 있다면, 이는 관사 체계의 습득에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이다.

2. 장소 및 시간 전치사: At, On, In

Celce-Murcia와 Larsen-Freeman(201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어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격어미가 탈락되고, 이를 전치사가 대신하고, 또한 각 개별 전치사는 다의적 의미를 지님에 따라 학습자들이 전치사 습득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현행 문법 교재나 수업에서는 한 번에 한 개식 각 개별 전치사의 단편적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각 개별 전치사의 의미가 고정된 것처럼 잘못 유도할 수 도 있다.

이 같은 전치사 학습의 문제점에 대한 가능한 대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 전치사들 간의 도식적 관계(schematic relationships)를 제안한다. 예를 들면, 전치사 *at*은 일차원적인 점(point)을 지시하고, 전치사 *on*은 이차원적인 선/면(line/surface)을 지시하고, 전치사 *in*은 삼차원적인 공간(volume)을 지시한다고 전제한다.

(5) a. I arrived **at** Seoul.
b. I arrived **in** Seoul.

(6) a. We sat **on** the grass.
b. We sat **in** the grass.

(7) **at** 5 o'clock, **on** Monday, **in** March

(8) a. She is **in** her room.
b. He goes there **in** a bus.
c. He speaks **in** English.
d. He is now **in** class.
e. She is engaged **in** reading.
f. She fell **in** love with him.

(5)의 두 예문은 '서울에 도착했다'라는 명제적 의미는 동일하지만, 전치사의 선택을 달리 함으로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화자는 (5a)의 *at Seoul*에서 *at*을 한 점으로 인식하므로 "역이나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는 의미이지만, (5b)의 *in Seoul*에서 *in*은 공간으로 인식하므로 역이나 터미널을 벗어나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6)의 두 예문도 명제적 의미는 동일하지만, (6a)의 *on the grass*에서 *on*은 평면으로 인식하여, "우리는 (잔디와 같은 짧은) 풀 위에 앉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6b)의 *in the grass*에서 *in*은 공간으로 인식하여, "우리는 (갈대처럼 사람의 허리춤 정도의 높이를 가진) 풀 속에 앉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유머러스하게 말하면, *and we are caressing each other*라는 표현을 (6a)에 덧붙이면 다소 민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6b)에는 그런 민망한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영어에서 주소의 표기는 통상적으로 *at*+번지수, *on*+도로명, *in*+도시명/국가명으로 표기된다. 또한 동일한 논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at, on, in*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7)에서 보듯이, *at*+시간에서 *at*은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한 점을 나타내며, *on*+요일/날짜에서 *on*은 주단위로 표시는 달력에서 날짜나 요일은 면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in*+월/계절명은 시간을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개별 전치사, 가령, *at*에 대해 형성한 도식은, (8)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물리적 의미에서 점차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확장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개별 전치사의 도식은 다른 전치사와 도식과 연결되어 도식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여 동사(Dative Verbs)

수여동사(Dative verbs)는 직접 목적어(direct object, DO)와 간접 목적어(indirect object, IO)를 동시에 가지는 동사를 말한다. 김용명(2020)의 논의한 바와 같이, 수여동사는 그 동사의 통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갖지만, 다음 (9)에서

보는 같이, 이를 두 구조로 일반화할 수 있다.

(9) a. S+V+DO+to/for+IO
b. S+V+IO+DO

문용(2015), Cowan(2013), Celce-Murcia와 Larsen-Freeman(2015)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는 수여동사 습득 과정에서 (9)의 구조를 과일반화(overgeneration)하여 다음 (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0) a. *She **explained** me the regulation.
b. *He **fixed** me the broken car.
c. *She **explained** the regulation for me.
d. *He **fixed** the broken car to me.
e. *He **gave** a book for me.
f. *He **bought** a computer to me.

그러나 현행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왜 어떤 동사는 *to*+IO 취하고, 또 다른 동사는 *for*+IO를 취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다음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IO를 취하는 동사와 *for*+IO를 취하는 동사를 제시할 뿐이다.

(11) a. to-dative verbs: *explain, give, bring, offer, owe, pay, recommend, sell, show, send, hand, tell, teach, throw, etc*.
b. for-dative verbs: *fix, buy, bake, build, cook, make, get, etc*.

(12) She e-mailed it ***to*** John.

다시 앞서 제기했던 질문을 제기해보자. 과연 NS들도 *to*-dative verbs와 *for*-dative verbs를 일일이 암기하여 수여동사의 구조를 생성할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NS들도 전 생애에 걸쳐 매 새로운 수여동사를 접할 때마다 *to* 또는 *for*를 취하는지를 사전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12)에서 보듯이, *e-mail*은 처음에는 명사로만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동사로 사용될 때, NS는 자신들의 언어적 직관에 따라 전치사 *to*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to*-dative verbs와 *for*-dative verbs에 대해 NS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 감각은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도 [±transfer]라는 의미자질일 것이다. 다시 말해, 수여동사의 행위의 결과로 DO가 IO로 완전히 'transference'가 일어나면, 즉, [+transfer]를 가지면, 그 동사는 *to*+IO를 취하고, 'transference'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일어날 가능성만 있으면, 즉, [-transfer]를 가지면, 그 동사는 *for*+IO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를 다음 예문에 적용해보자.

(13) a. John **gave** the *book* **to** Jane.
b. John **bought** the *book* **for** Jane.

(13a)에서 보듯이, *John*이 DO인 *the book*을 *giving*하는 행위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것은 이미 IO인 *Jane*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수여 동사의 행위를 수행한 결과, DO, 그것이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IO에게 전달/전이되면, *to*+IO를 취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to*-dative verbs, 가령, *send, hand, e-mail, transmit, show, throw, tell, teach* 등을 생각해 보자. 반면, (13b)에서 보듯이, *John*이 *DO*인 *the book*을 *buying*하는 행위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것은 바로 IO인 *Jane*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럴 가능성만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수여동사의 행위를 수행한 결과, DO에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그럴 잠재성이 있으면, *for*+IO를 취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for*-dative verbs, 가령, *buy, build, cook, make* 등을 생각해 보자.

4. 부정사와 동명사(Infinitives and Gerundives)

제 2언어 습득 연구 보고에 따르면(Celce-Murcia & Larson-Freeman, 2015; Cowan, 2013; Pienemann, 1998), 학습자들의 비정형절(nonfinite clauses)의 습득과정에서 주요 오류의 원인은, 다음 (14)에서 보듯이, 주절동사(matrix verbs)와 비정형절(부정사, 동명사)을 잘못 연결(miscoupling)하는 데 있다.

(14) a. *I *hope seeing* him tonight.
b. *I *expect* you *becoming* a doctor.
c. *I *avoided to go* such a place.
d. *I *prevent* him *to play* such a dangerous trick

그러나 대부분의 현존 문법서와 문법 수업에서는, 다음 (15)-(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목적어로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둘 다 취할 수 있는 동사와 예문들 제시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다.

(15) a. I *hope to see* you.
b. I *want to go* to the concert.
c. Verbs taking infinitives as the object: *expect, hope, intend, want, wish, etc*.

(16) a. I *avoid going* to such a place.
b. I *finished writing* my proposal.
c. Verbs taking gerundives as the object: *avoid, enjoy, finish, mind, stop, prevent, etc*.

(17) a. It *begins to rain*.
b. It *begins raining*.
c. Verbs taking either infinitives or gerundives: *begin, start, try, like, remember, etc*.

과연 NS들도 위 (15)-(17)에서 제시된 각 동사들이 부정사를 취하는지 동명사를 취하는지 일일이 암기해서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서 활용될까?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언어적 경험을 토대로 비정형절에 대한 일종의 언어적 직관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이를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 적격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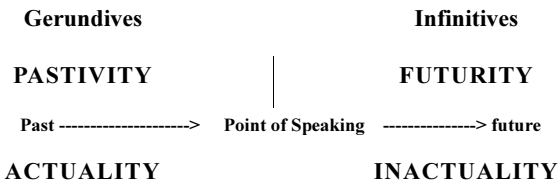
그렇다면 NS의 이와 같은 언어적 직관을 어떻게 개념화 또는 추상화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다음 (18)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18) John: I love you! I'll be forever with you!
Jane: Oh, my love! You'll be in my heart forever!
Narrator: a. [John approaches Jane, and he ***begins to kiss her***.]
b. [They hug passionately, and ***begin kissing***.]

(18)의 다소 신파적인 낭만적 장면에서 작가는 자신의 의도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Narrator (a)로 사건을 묘사할 수도 있고, Narrator (b)로 사건을 묘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Narrator (a)에서 주절동사 begin은 부정사 to kiss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 반면, Narrator (b)에서 그 동사는 동명사 *kissing*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전통 문법에 따르면, *begin*과 같은 동사는 부정사를 취하나 동명사를 취하나 현저한 의미 차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18)의 Narrator (a)의 *begins to kiss*와 Narrator (b)의 *begin kissing*은 상호 교체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유머러스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18)의 Narrator (a)와 Narrator (b) 중에서 두 남녀의 입술이 완전히 닿은 것은 어느 쪽인가? NS의 언어적 감각을 전제한다면, (a)은 '두 남녀의 입술이 아직 완전히 닿지는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면, (b)은 아마 '두 남녀의 입술이 이미 닿은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한 대로 NS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사/동명사에 대한 언어적 감각을 다음 (19)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19) Infinitives/Gerundives manifesting ‘pastivity/futurity’ as linguistic sense



(19)에서 보듯이, 동명사는 언어적 감각으로 과거성(pastivity)과 이에 따른 실현성(actuality)을 가지며, 역으로 과거성과 실현성을 나타내는 문법적 수단이 동명사(V-ing)라는 것이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18)의 시나리오에서 보았듯이, 과거성이란 화자가 발화시점 이전의 과거 어떤 시점에서 사건이나 상태가 시작, 계속, 전개되어온 것을 지각하는 것을 말하여, 실현성이란 그렇게 지각한 사건이나 상태가 발화시점에서 실현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은유적 표현을 빌리면, 발화시점 이전부터 이미 꽃봉오리가 맺혀지고, 성숙되어, 마침내 발화시점에서 완전히 만개하는 꽃이라는 것이다. 반면, 부정사는 언어적 감각으로 미래성(futurity)과 미실현성(inactuality)을 가지며, 역으로 미래성과 미실현성을 나타내는 문법적 수단이 부정사(to+V)가 된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18)에서 보았듯이, 미래성이란 화자가 발화시점 이후의 어떤 시점(미래)에 사건이나 상태가 시작, 계속,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말하여, 미실현성이란 그렇게 지각한 사건이나 상태가 발화시점에서 보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은유적 표현을 빌리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만개할 수도 있겠지만, 발화시점에서 보면 이제 막 꽃봉오리가 맺혀지기 시작한 (아직 피어나지 않는) 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19)에서 제안한 부정사/동명사의 언어적 감각에 따라 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보자.

(20) a. I *hope to see* you.
b. I *stop playing* golf.

(20a)에서 동사 *hope*는 *to see you*를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seeing you*할 사건이 일어날 것이지만, 발화시점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으므로 ‘만날 것을 희망 한다’는 의미가 된다. 역으로 설명하면, *attempt, decide, expect, hope, intend, seek want, wish* 등과 같은 동사는 미래성을 가지며, 이에 부합하는 문법 형식으로 부정사를 취하며, (20a)에서 보듯이, 발화시점 이후에 부정사의 사건/상태가 시작, 전개될 것을 나타내며, 발화시점에서 보면, 그 사건/상태가 아직 미실현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한편, (20b)에서 동사 *stop*은 *playing golf*를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발화시점 이전의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이

미 *playing golf*라는 사건이 시작, 계속되어왔으며, 발화시점에서 '골프를 쳐온 것을 그만두다'는 의미가 된다. 역으로 설명하면, *stop, avoid, finish, prevent* 등과 같은 동사는 과거성을 가지며, 이에 부합하는 문법 형식으로 동명사를 취하며, (20b)에서 보듯이, 발화시점 이전부터 동명사의 사건/상태는 이미 시작, 지속되어 왔으며, 그 사건/상태가 발화시점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19)의 제안에 따라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를 취하는 동사의 의미사의 차이를 살펴보자.

(21) a. I would *love to read* the novel you've recommended.
b. I *love reading* novels.

(22) a. I *tried to call* you, _____
b. I *tried calling* you, _____
c. but my phone's battery was dead.
d. but your line was busy.

(21a)에서 동사 *love*는 *to read the novel*를 취하고 있다. (19)의 제안에 따르면, 부정사는 미래성과 미실현성을 가지므로 "want to read a certain (specific) novel (i.e. the one you've mentioned)"를 의미하며, 이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법조동사 *would*를 수반한다. 반면, (21b)에서 동사 *love*는 *reading novels*를 취하고 있다. (19)의 제안에 따르면, 동명사는 과거성과 실현성을 가지므로 "(Generally) I like reading novels"를 의미하며, reading이 일종의 취미일 수도 있다. 또한 (22a)에서 동사 *try*는 *to call you*를 취하고 있으며, (22a) 다음에 (22c)를 연결하면, 자연스럽지만, (22d)를 덧붙이면, 그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반면, (22b)에서 동사 *try*는 *calling you*를 취하고 있으며, (22b) 다음에 (22d)를 연결하면, 자연스럽지만, (22c)를 연결하면, 부자연스럽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문법 체계의 직관화의 논리에 따라 NS들은 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언어적 직관을 [+futurity]/[+pastivity]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도 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한 NS의 이런 언어적 직관에 관해 'feel' 형성할 수 있다면, 비정형절을 보다 쉽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ESL/EFL 상황에서 문법 규칙을 어떻게 직관화할 것인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으로 문법 체계에 관해 NS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언어적 직관을 도출하고, 이를 의미자질로 나

타냈다. 구체적으로, 관사 체계에 대해서는 [±abstract]/[±definite]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abstract]의 자질을 갖는 명사는 무관사(∅)를, [-definite]의 자질을 갖는 명사는 부정관사(*a*(*n*))를, [+definite]의 자질을 갖는 명사는 정관사(*the*)를 각각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여동사의 구조에 관해서는 [±transfer]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여동사가 [+transfer]자질을 가지면, *to*+IO 구조를, [-transfer]자질을 가지면, *for*+IO 구조를 취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사/동명사 체계에 관해서는 [±pastivity]/ [±actuality]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절 동사가 [-pastivity(+futurity)]/[-actuality]의 자질을 가지면, 부정사를 취하고, [+pastivity]/[+actuality]의 자질을 가지면, 동명사를 취한다는 언어적 감각을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문법 체계를 의미자질로 나타내는 직관화의 논리는 문법 체계의 전 영역, 구체적으로, 시제 체계, 시상 체계, 능/수동태, 비정형절/정형절 체계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각 체계의 언어적 직관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법 체계의 직관화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한 가능한 대안은 Fotos와 Ellis(1991), Nassaji와 Fotos(2011) 등이 제안한 소위 의식 발현 과업(conscious raising tasks, 이하 CR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CR 과업의 구성 원칙과 절차에 따라, 먼저 명사 체제, 수여 동사, 부정사/동명사 체계 등에 관한 CR 과업을 구성하고, 이 같은 문법 체계와 관련된 학습자 오류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오류의 요인을 의식하게 한다. 이어서 각 체계에 대한 대조적 예문을 제시하여 각 체계 간의 차이점과 대조점을 인식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각 체계에 관한 언어적 직관을 포섭하는 지배 개념을 찾아내게 하고, 이를 의미 자질, 가령, [±abstract], [±definite], [±transfer], [±pastivity]로 제시하여 각 체계 간의 문법적, 의미적 차이를 인식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언제 왜 어떤 체계를 선택해야하는지 'sense'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법 규칙의 직관화는 ChatGPT로 대표되는 지식 혁명 시대에 문법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ChatGPT의 "Send message"칸에, 가령, "부정사의 용법에 관해 설명해주시오" 또는 "부정사와 동명사의 용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오"라고 입력해 보면, 현재의 그 어떤 문법서 또는 문법 수업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주어질 것이며, 더구나 쌍방향 대화를 통해 맞춤식 심화학습도 가능하다. 이것은 문법 규칙의 지식화에 머물고 있는 현행 문법 교육은 한계에 달했으며, 그 효용을 다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AI 시대! 이제 문법 교육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김용명. (2019). 영어 관사 체계의 재음미. *예술 인문 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0), 1-9.

김용명. (2020). 수여동사(Dative Verbs)의 재음미. *영어어문교육 26*(4), 61-78.

문용. (2015). *고급 영문법 해설*. 박영사.

Aarts, B. (2018).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5th ed.). London: Palgrave.

Celce-Murcia, M., & Larsen-Freeman, D.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2nd eds). Heinle & Heinle.

Cowan, R. (2013).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ughty, C., & Williams, J. (1998).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lis, R. (2001). Introduction: Investigating form-focused instruction. *Language learning, 51*, 1-46.

Fotos, S., & Ellis, R. (1991). Communicative about Grammar: A task-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25*, 605-628.

Haegeman, L., & Gueron, J. (1999). *English grammar: A generative perspective*. Blackwell Publishers Ltd.

Long, M. (1991).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In K. Debot, R. Ginsberge, & C. Kramsch (Eds.),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39-52). John Benjamins.

Nassaji, H. & Fotos, S. (2011). *Teaching grammar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Routledge.

Parrott, M. (2010). *Grammar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enemann, M. (1998). *Language processing and second language development: Processability theory*. John Benjamins.

Radford, A. (2016). *Analysing English Sentence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김용명(교수)
국립안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송천동) 국립안동대학교
Email: mencius@anu.ac.kr

Received: July 29, 2023
Reviewed: August 31,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September 14, 2023